

## 순환아스콘 확대와 우리의 역할

### Expansion of Recycled asphalt paving mixtures and Our Role



노성환 Seong-Hwan Noh  
한국순환아스콘협회 이사  
E-mail : roadqa@naver.com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여 공공녹색제품 구매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녹색제품의 하나인 순환아스콘을 소개하면서 나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수고에 비하여 수강자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수강자들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혼자만 고군분투 허튼 짓 한 것 같아 그때의 미안함이 새삼스럽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은 당연하고, 행정직 구매담당자가 순환아스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얻을 수밖에 없었고,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지역주민들과 민원 마찰로 발생하여 얻어지는 상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였다.

간혹 순환에 대한 보편적 시각을 생산자 입장에서 애써 반박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만 이루어질 뿐 공감을 이끌어 내거나 교감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 눈높이에서는 재생, 재활용, 순환, 친환경 제품이라며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색안경을 끼게 된다.

필자도 이전에는 고루(固陋)했다.

주변에서 재활용 제품이라면 노후된 제품, 저질제품, 부실한 제품 일 것이라는 인식을 막연히 가지고 있다. 당장 남이 입었던 옷, 남이 사용한 신발, 남이 사용했던 물건은 웬지 모르지만 내가 사용하기에 찻찻한 것은 사실이다. 만약 식당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먹고 남겼던 음식을 그대로 되돌려 나온 것을 알았다면 불쾌하고 비위가 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맛나게 먹었던 음식을 또다시 데워 먹을 땐 어떤가? 거부감이 덜하다.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신었던 신발, 내가 쓰는 안경,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내가 써온 물건들은 손에 익고 익숙해져 오히려 편하다.

똑같은 물건을 남이 사용 하였던 것을 사용하려면 꺼림직 하고, 내가 재사용하면 거부감이 없다?

우스갯소리로 이혼한 여자, 이혼한 남자, 재방송을 보면 신선도는 떨어진다고 말한다.

가령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화투, 주사위 등 함께 사용했던 운동기구에 대한 불편한 기억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이다. 식당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한 접시는 부담 없이 재사용 한다. 수저는 어떤가? 남의 입속까지 사용했지만 거리낌이 없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다.

이는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공공재<sup>1)</sup>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도로에 사용되었던 아스콘도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이용했던 공공재다. 빗물이나 폭설, 햇볕에 의한 노화가 진행되어 품질이 떨어지면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 기능을 원상회복시킨다.

재활용제품에서 순환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의미는 원산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고, 외국에서는 벽돌이나 기왓장, 오래된 건축물에 사용했던 재료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젠 우리나라도 대들보나 서까래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도 서서히 늘고 있다. 품질은 앞서 검증되었고,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에 손때가 묻어 있어 낡다른 정이 느껴지고 고풍스런 품격의 기운이 나온단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빨리 빨리에 익숙해졌고, 쉽게 사고 쉽게 버리며 새 것이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고정관념이 스며들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벤허 같은 영화는 다시 봐도 감동이다. 그것은 이미 검증된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재활용제품이 신재보다 월등히 좋거나 우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명하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인구에 비례하여 좁은 땅덩어리와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원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재생이나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환이라는 용어 하나 바꾼다고 한순간 모든 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뼈를 깎는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재활용제품 구매를 주저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사회의 현실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하기 보다는 신뢰가 바로 서기까지 기다려 주는 배려가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 한다. 더욱이 재활용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빠른 성과가 없다고 조급해하거나 무거운 인식을 지레 가질 필요가 없어서 드리는 이야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다가올 때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우리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담당 편집위원 : 박원준(강원대학교)

<sup>1)</sup>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 ● 학회 특별회원사 동정 안내

Magazine of RCR(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은 계간으로 발행되어 회원을 비롯한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원사의 최신 정보 및 기술현황 등의 홍보사항을 학회지에 무료로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특별회원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원고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특별회원사 홍보내용

특허, 신기술, 신제품, 수상실적, 세미나 및 시연회, 사회공헌 등

### 2. 원고 분량

A4 2~4매 내외이나 특별한 제한이 없음(그림 또는 사진포함 가능)

### 3. 보내실 곳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오경숙 차장(E-mail : rcr@rcr.or.kr, Tel.02-552-4728)